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박정수(전 한양대 연구교수)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두 국민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패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한중간 문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찾는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붕괴에 직면한 중국이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문화 갈등이 파생되었다. 그렇다고 중국 민족주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 민족주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내부 방어적 성격 때문에 중국과의 문화 갈등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박정수(전 한양대 연구교수)

1. 머리말

한해가 저무는 2022년 12월 말의 어느 날, 한 기사가 문득 내 눈에 들어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가장 높다라는 내용이다. 국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였다 보니 그 기사의 내용이 참담하다.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면 과한 이야기일까? 2006년 중국의 베이징영화대학(北京电影学院)에서 잠시 연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다. 중국 동기들과 우리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한국 전통 부채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다. “한국 무용이네”라던 한 중국인 친구가 돌연 “중국 전통 무용이네”라고 말을 바꿨다. “뭘 소리야! 분명히 한복을 입고 한국 춤을 추고 있는데”라고 응수하니, 이 친구가 “자막을 봐! 연변대학 전통무용과 학생들이라잖아, 조선족의 전통 무용이니 중국 전통 무용이지”라고 말했다.

같은 옷, 같은 춤인데 무용수의 국적에 따라 한국 춤이 되었다가 중국 춤이 되었다. 친구의 논리대로라면 한복도 한국의 전통 옷이자 중국의 전통 옷이 된다. 영화밖에 모르는 지극히 평범한 이 친구에게서 어떻게 문화를 국경과 국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때 앞으로 이 문제가 한국과 중국 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감했다.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부터 단오제, 한의학, 김치 그리고 최근에는 한복, 매듭장,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질수록 중국인들의 반응 역시 더욱 격해지는 모양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중국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독특한 사고, 민감한 반응 그리고 때론 광기어리기까지 한 집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

1990년대 이래 중국 대륙에서 급속히 부상했던 민족주의가 시진핑(習近平) 집권 시기에 들어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민족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의 급속한 몰락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왜 그토록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지, 왜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기에 20세기의 구 유물로 취급받던 민족주의를 급하게 들고 나왔는지 등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중국은 과연 민족 국가(nation-state)일까 아니면 제국(empire)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민족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한 개념은 민족주의 학자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의 정의로 보인다. 그는 민족주의를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political principle)”로 정의한다.¹⁾ 부연하자면 민족주의는 정치적 단위로서 ‘국가(state)’와 민족적 단위로서 ‘민족(nation)’을 일치시켜 보다 통합된 공동체인 ‘민족 국가(nation-state)’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적 원리, 그리고 이 원리에서 파생하는 운동이나 의지 또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state)는 일정한 영토와 배타적 주권을 가진 집단으로 영토적·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의식적·관념적 의미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민족 국가는 영토나 제도 그리고 의식이나 관념에서 통합된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일치한다면 민족 국가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국에 가까울 것이다.

중국을 지배 민족인 한족을 포함해서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을 민족 구성비로 보면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이 전체 인구의 8.4%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여느 다른 다민족 국가보다도 하나의 민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한국만 해도 2020년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 외국인 등 외국계 인구가 2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4.3%를 차지한다고 한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한국이나 다민족 국가라는 중국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민족 구성비로 본다면 중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 버금가는 민족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을 각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의 영토 비중으로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인구 구성에서 8.4%에 불과하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토는 중국 전체 영토의 63.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들 소수 민족들의 고유 영토에는 중국 지하자원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상 가장 중요한 변방 국경 지역들이다. 티베트(Tibet), 신장 위구르(新疆維吾爾), 내이멍구(內蒙古) 등이 면적, 자원, 안보 등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한 소수 민족 지역들이다. 그런데 중국 내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바로 이들 지역의 소수 민족들이 줄기차게 독립을 요구하며 가장 첨예한 민족 갈등을 보이고 있다.²⁾

1) Ernest Gellner, 2006, Nations and Nationalism,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p. 1.

2) 박정수, 2012, 「중국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문화 갈등: 역사와 문화의 경계짓기」,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79-80쪽.

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국 민족주의의 길

중국 민족주의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내 56개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중국 민족의 형성에 있다. 정치적 단위 ‘중국(China)’에 부합하는 민족적 단위 ‘중국 민족(Chinese Nation)’의 건설 말이다. 그렇다면 중국 민족주의가 직면한 당면 과제는 당연히 ‘어떤 중국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민족의 존재에 있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인 만큼 민족 역시 민족주의 이후 즉,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이전부터 민족은 존재해 왔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이를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근대 이전의 민족인가 근대 이후의 민족인가에 따라서 민족의 실체와 성격이 무척이나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에 등장한 민족들은 대체로 실존하는 국가(state) 위에 형성되었다. 이들 민족은 기존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족들과 인종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 박애 등의 근대적 가치와 국민참여, 국민투표 등의 민주적 제도를 토대로 했다. 특정 종족의 문화와 역사에 치우치면 다른 종족들과 인종들의 거부감을 불러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근대 이후에 등장한 민족을 ‘시민적 민족(civic nation)’이라 부른다. 시민적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 의식적으로 형성된 구성적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시민적 민족은 법적-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고, 구성원의 민족 선택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민족은 대체로 민족 자체의 역사성, 혈연적 계보 그리고 고유문화를 강조한다. 이런 민족을 ‘종족적 민족(ethnic nation)’이라 부르는데 종족적 민족은 시민적 민족과 같은 구성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 즉 역사적 실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종족적 민족은 역사적-문화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고, 민족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 지어진 존재로서 다분히 폐쇄적인 성향을 갖는다. 종족적 민족은 대체로 비서구적 유형의 민족으로 우리의 민족 개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³⁾

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본다면 중국 민족주의가 가야 할 중국 민족은 당연히 시민적 민족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가 위에 56개 민족을 포괄하는 새로운 중국 민족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중국으로서는 근대적 가치와 민주적 제

3) Liah Greenfeld, 2006, “Modernity and Nationalism,” in Gerard Delanty and Krishan Kumar (eds.), *The SAGE of Handbook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pp. 157-168;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2000, “General Introduction.” i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I*, London: Routledge, pp. xxv-xlii.

도를 토대로 하는 시민적 민족을 선택할 수가 없다. 더욱이 시민적 민족은 구성원의 민족 선택에 개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는 중국에게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면에 종족적 민족은 민족을 운명적 존재로 여기기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종족적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민족문화를 토대로 하는 실존적 존재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실존하는 민족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중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시민적 민족은 결코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야할 길은 하나, 종족적 민족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 민족을 유구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가진 역사적 실체로 만들어야만 한다.

4. '중화민족(中華民族)' 만들기

1) 이론화 작업

중국은 중국 민족을 특별히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고 부른다. 중화민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이론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주의가 동유럽에서부터 그 힘을 잃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중화민족의 이론화 작업에는 페이샤오통(費孝通)이라는 학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대 말 그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을 주장하며 중화민족의 개념을 재정비했다.⁴⁾ 그는 사회주의 중국 초기부터 중국 민족주의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바탕으로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이 근대 이전부터 이미 다민족 통일 국가였다는 논리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이 융합되어 통합적 민족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미 진(秦)과 한(漢) 시기에는 완벽한 민족 국가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진이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했으니 그때부터 중국이 완벽한 민족 국가였다는 주장이다.

페이샤오통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중화 민족 역시 이미 형성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화민족은 자각된 민족 실체로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한족이 지속적으로 이민족을 동화, 흡수함으로써 다민족이 융합되어 불가분의 통일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중화민족은 오랜 역사를 갖는 민족적 실체로서 현존 영토 안에 있는 56개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 영토 안에 살았던 모든 민족 집단들을 포괄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중화민족 이론을 추적해가다보면 한족과 중화민족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가 말한 중화민족의 형성 과정은 곧 한족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화민족은 곧 한족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중국 민족주의가 심화될수록 소수 민족들, 특히 티베트(西藏),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네이멍

4) 費孝通, 198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구(內蒙古) 자치주를 필두로 소수 민족과 한족 간의 민족 갈등 역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잘 실증해준다.



〈사진 1〉 2008년 5월 베이징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티베트의 라싸(拉薩)에서 시위가 거세게 일던 시기의 사진. 윈난성(云南省)의 최북단, 티베트와 접경에 있는 중뎬(中甸)이라는 티베트인들의 작은 도시의 모습이다. 왼쪽은 무장경찰이 시내를 돌며 티베트인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도시의 체육관 앞에 도열해 있는 무장 병력의 트럭들 모습이다(필자의 사진).



〈사진 2〉 2013년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서쪽 끝에 있는 위구르인들의 작은 도시 카스(Kashgar, 喀什). 왼쪽은 위구르인들의 마을 집집마다 꽃혀 있는 오성홍기의 모습, 오른쪽은 위구르인들의 마을 초입이나 도로마다 서 있는 무장경찰의 모습이다(필자의 사진).

2) 실천적 작업: 역사 공정과 애국 교육

민족주의는 역사와 문화를 자신에게 부합하도록 ‘재해석’하여 민족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공교육, 집단 의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재생산’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밑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표현대로 “제국의 거대한 몸체에 짚고, 꼭 끼는 민족이라는 가죽을 덮어씌우려는 것”⁵⁾ 될 수 있다.

중화민족의 이론화 작업이 완성되자마자 중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

5) Benedict Anderson,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New York: Verso, p. 86.

석하고 이를 공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하는 실천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재해석 작업은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인위적으로 편입시키는 역사 공정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중화민족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 내 모든 민족들이 융합해서 형성된 민족적 실체로 만들려는 이상,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통합해야만 한다. 앞서 앤더슨의 표현을 빌린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중화민족이라는 짚고, 꼭 끼는 가죽을 덮어씌우는 작업이다.

가장 먼저 시도된 역사 공정은 중화민족의 시원을 형성하는 고대사 작업이다. 중화민족의 가죽을 수천 년 전으로 길게 늘이는 작업이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진행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된 ‘중화文明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 그것이다.

이들 거대 역사 공정에 각 소수 민족들의 세부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키는 역사 공정이 진행되었다. 중화민족의 가죽을 본격적으로 소수 민족의 영토로 길게 잡아 늘이는 작업이다. 북쪽의 네이멍구(內蒙古)로 늘이는 북방공정(北方工程), 서남쪽의 티베트 지역으로 늘이는 서남공정(西南工程), 남쪽의 베트남 접경 지역으로 늘이는 남방공정(南方工程), 서북쪽의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늘이는 서북공정(西北工程) 그리고 동북 3성 지역으로 늘이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바로 이들 작업들이다.⁶⁾



〈그림 2〉 중국의 역사 공정 (출처: 박정수, 2022, 『중국 민족주의와 한중 문화갈등』, 김인희 편, 『문화의 시대, 한중 문화충돌』,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66쪽)

다음으로 재생산 과정은 애국주의 운동을 통해 나타났다.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해석은

6) 박원길, 2007,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 연구: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국사인가」, 『高句麗研究』, 제29집, 382쪽; 공봉진, 2009, 「중국 소수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 티베트와 위구르족의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2집 1호, 149-151쪽; 정원철, 2016,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 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7-18쪽.

공교육, 대중매체 등의 애국주의 운동을 통해 확산시키고 심화시켰다. 중국에서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는 애국주의는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곧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민족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와 연결되었다.

애국주의 운동은 1990년대 전국적인 교육 운동으로 시작했다. 애국주의 교육은 1994년에 발표된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講要)’와 2019년에 발표한 ‘신시대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新時代愛國主義教育實施講要)’을 통해 강화되었다. 애국주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55개 소수 민족들을 중국의 인민이자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은 성인들에게도 실시되고 있지만 주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의 청소년에 집중되었다.

5. 중화민족 만들기와 한중 문화 갈등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 특히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역사 공정은 내부적으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보다 통합된 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중국과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공유해온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중 간 역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동북공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북공정은 옛 만주를 중심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 작업이다. 특히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경내의 변강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고구려 문화가 고려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한다.⁷⁾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한국 고대사와 한국사는 단절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사에 편입되면 자연스럽게 동북 지역에 뿌리를 둔 현 조선족의 문화 역시도 중국 문화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고대 역사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판소리, 아리랑 등 현존하는 한국과 조선족 즉, 중국 동포의 전통문화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물리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중간의 역사와 문화 갈등을 보다 확대하고 심화시킨다.

하나는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도로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중화민족은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그 핵심 토대로 한다. 중화사상은 “중심과 주변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중심주의의 한 전형”으로⁸⁾ 동아시아 주변국의 문화는 지류(支流)로서 원류(原流)인 중국의 문화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본다. 이는 동아

7) 문형진, 2008, 「중국의 조선족 통합정책과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 문형진 외, 『다민족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7-27쪽; 윤휘탁, 2006,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267쪽; 이희욱, 2005,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이개석 외,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123-125쪽.

8) 김성환, 2010, 「華夷 너머의 相生: 中華 관념이 해체된 동아시아는 가능한가?」, 『중국학논총』 제28집, 264쪽.

시아 유교문화의 대부분을 원류인 중국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중간 있었던 단오제, 한의학 등과 같은 문화 귀속의 문제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애국주의 운동이 중국의 흥위병적 대중 민족주의 성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민족주의 학자인 피터 그리즈(Peter Hays Gries)는 중국 민족주의에는 흥위병적 특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민족주의가 “문화대혁명의 유산으로서… 일절 타협하지 않는, 적을 몰살시키는, 그리고 자비심 없는 흥위병 스타일의 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⁹⁾ 이는 중국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선전 그리고 대중적 동원과 폭력에 극단적으로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중화민족은 한족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화민족을 강화하려는 애국주의 교육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족 중심의 대중 민족주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재된 흥위병적 성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최근 갈등 이슈마다 몰려다니면서 인터넷 상에서 극단적인 분노와 과격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소분홍(小粉紅)과 같은 중국 청년 집단의 등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등장은 작은 이슈에도 한중 국민간의 극한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성을 갖는다.

6. 맺으며

중국 민족주의는 다분히 방어적이다. 이는 중국 민족주의가 중국 내부의 통합과 양안(兩岸)간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민족주의는 방어적인 만큼 절대적이고 그만큼 극단적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소수 민족들의 분류가 심화되고 타이완과의 갈등이 증폭되면 될수록 중국은 ‘중화민족 만들기’에 더욱 집착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들과의 역사와 문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현존하는 한중간의 문화 갈등을 단순한 문화적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9) Peter Hays Gries, “China and Chinese Nationalism,” in Gerard Delanty and Krishan Kumar(eds.), *The SAGE of Handbook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pp.494-495.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